

주부의 더덕 소비실태 및 기호도 조사

홍완수 · 이진실 · 김은정¹ · 최영심²

상명대학교 의식영양학과, ¹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Consumption and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by Housewives

Wan-Soo Hong, Jin-Sil Lee, Eun-Joung Kim¹, Young-Sim Choi²

Food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Sangmyung University

¹Food and Nutri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²Natu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eference and conditions of consumption. A survey of 299 housewives from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alyzed the preference and the conditions of consumption, the general backgrounds and the actual state of diet and health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52.8% answered a traditional market place as the place they most commonly purchased *Codonopsis lanceolata*. When purchasing *Codonopsis lanceolata*, 49.2% purchased unwashed. For the frequency of intake, 38.5% of the housewives surveyed answered 1-2 times per year and 38.5% perceived *Codonopsis lanceolata* as a very healthy food. Among the subjects, 46.2% answered their spouse as the person who most likes *Codonopsis lanceolata* in the family. Regarding the question of why they preferred *Codonopsis lanceolata*, 39% answered because it was healthy, compared to 36.0% who answered high cost as the reason why they did not prefer *Codonopsis lanceolata*. *Codonopsis lanceolata* preference showed a notable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verage income, interest in health, and intake frequency ($p < 0.01$).

Key words : *Codonopsis lanceolata*, Housewives, Preference, Consumption

1. 서 론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건강에 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TV다큐멘터리는 웰빙(well-being) 바람과 맞물려 한층 고조되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음식은 더 이상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던 시대를 마감하였다(Chung HK 등 2001). 즉 사

람들은 음식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맛과 영양'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음식이 건강을 지켜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Laffrey 1990). 하지만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면서 고지방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여 영양과잉 섭취로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 이환율 및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Cho MY 2003). 이에 따라 근래에는 건강식품이나 자연 무공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약용 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식품 선택 시 풍미와 질감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Cho EJ 2000).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그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식용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m Choi, Sangmyung University, 7 Hongji-dong, Jongno-gu Seoul 110-743, Korea
Tel: 02-2287-5129
Fax: 02-2287-5129
E-mail : cys0411@hanmail.net

구이나 무침, 누름적, 장아찌 등으로 이용되어 왔고 특히, 사찰에서는 더덕의 어린순으로 나물을 무쳐 먹고 뿌리는 튀김, 전, 무침 등으로 먹으며 송차에 넣기도 하였다(Lee SK 1999). 이러한 더덕은 한방에서 폐 기운을 돋워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약재로 사용되어 강장, 해열, 거담, 해독, 배농 등의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영양적으로 훌륭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른 산채에 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 칼슘, 인, 철분과 같은 무기질과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가 풍부하다. 그러나 더덕은 향미가 독특하고 씹는 질감이 우수하며 식욕을 촉진시키는 건강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시 표피를 벗겨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물 세척만으로는 충분한 세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간편성,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hung MS & Kang KJ 1995).

이러한 더덕의 국내연구로는 더덕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Maeng YS & Park HK 1991), 최근에는 더덕으로부터 면역세포 성분을 분리한 연구만 보고되고 있다(Suh JS & Eun J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더덕의 소비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더덕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Oh HS 등(2002)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총 배부된 설문지 348부 중 301부(회수율 86.5%)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 기재 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299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사항과 더덕에 대한 소비실태

및 선호도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수입, 식비 등에 관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더덕에 대한 소비실태 및 선호도는 10문항으로 나누어 더덕의 선호도, 더덕을 좋아하는 이유 및 더덕을 싫어하는 이유, 섭취빈도, 섭취 장소, 더덕 수요에 대한 전망, 구입 장소, 구입형태 등이 포함되었으며 선호 및 비 선호이유는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조사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및 백분율, t-검정과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주부의 일반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주부의 연령은 30~40대가 250명으로 전체의 83.6%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9.8세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출신지는 대도시가 106(35.5%), 농·어촌 98(32.8%), 중소도시 89(29.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165(55.2%), 대졸이상인 106(35.5%)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구성은 3~4명이 186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또,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직장여부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의 54.5%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200~300만원이 32.1%, 200만원 미만인 27.1%, 300~400만원이 2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식비의 경우는 20~40만원이 34.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40~60만원이 32.8%, 60만원 이상이 21.4% 순으로 나타났다.

2. 더덕에 대한 소비실태 및 선호도

1) 더덕 구입 장소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더덕 구입 장소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의 경우는 63.1%가 재래시장, 21.0%가 대형할인점, 30~39세는 56.8%가 재래시장, 26.4%가 대형할인점, 40~49세는 43.9%가 재래시장, 31.7%가 대형할인점, 50세 이상은 74.1%가 재래시장, 11.1%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의 53.4%가 재래시장, 26.9%가 대형할인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55.7%가 재래시장, 27.7%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졸 미만의 경우는 80.0%가 재래시장, 20.0%가 대형할인점, 중

졸에서는 57.9%가 재래시장, 26.3%가 대형할인점, 고졸에서는 63.6%가 재래시장, 22.7%가 대형할인점, 대졸 이상은 42.3%가 재래시장, 35.6%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전체 53.8%가 재래시장, 27.3%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70.0%가 재래시장, 11.3% 대형할인점, 200~300만원은 56.2%가 재래시장, 27.1%가 대형할인점, 300~400만원은 44.6%가 재래시장, 38.5%가 대형할인점, 400~500만원은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각각 35.1%로 조사되었으며, 500만원 이상은 62.5%가 대형할인점, 25.0%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주부들은 더덕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수입이 높을수록 대형 할인점, 백화점에서 더덕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53.9%가 재래시장, 27.4%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업 주부가 재래시장 51.9%, 대형할인점 27.4%, 취업주부의 경우 재래시장 53.9%, 대형할인점 24.5%로 나타났으며 직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을 구성하는 인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53.3%가 재래시장, 27.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명 미만의 경우는 68.2%가 재래시장, 13.6%가 대형할인점, 3~4명에서는 50.3%가 재래시장, 29.7%가 대형할인점, 5~6명에서는 55.3%가 재래시장, 23.7%가 대형할인점, 7명 이상은 60.0%가 재래시장, 30.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식비별로 살펴보면 전체 54.0%가 재래시장, 26.9%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53.5%가 재래시장,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이 각각 17.9%로, 20~40만원은 59.4%가 재래시장, 19.8%가 대형할인점, 40~60만원은 56.7%가 재래시장 30.0%가 대형할인점, 60만원 이상은 41.3%가 재래시장, 38.1%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월수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Lee HJ(2000)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시판김치의 구입 장소로 대형 할인점, 농협, 재래시장, 백화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Kim JS(1995)의 연구에서 버섯을 구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N(%)
Age(years)	20~29	19(6.4)
	30~39	126(42.1)
	40~49	124(41.5)
	≥ 50	28(9.4)
	non response	2(0.6)
	Total	299(100.0)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06(35.5)
	Small-medium city	89(29.8)
	Farm-sea village etc	98(32.8)
	etc	4(1.3)
	non response	2(2.6)
	Total	299(100.0)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5(1.7)
	Middle school	19(6.4)
	High school	165(55.2)
	≥ Collage	106(35.5)
	non response	4(1.3)
	Total	299(100.0)
Family size	≤2	22(7.4)
	3~4	186(62.2)
	5~6	77(25.8)
	≥7	11(3.7)
	non response	3(1.0)
	Total	299(100.0)
Job	Yes	163(54.5)
	No	108(36.1)
	non response	28(9.4)
	Total	299(100.0)
Monthly Income (Won)	≤2,000,000	81(27.1)
	2,000,000~3,000,000	96(32.1)
	3,000,000~4,000,000	66(22.1)
	4,000,000~5,000,000	37(12.4)
	≥ 5,000,000	9(0.3)
	non response	10(3.3)
	Total	299(100.0)
Monthly food expenses (Won)	<200,000	27(9.9)
	200,000~400,000	102(34.1)
	400,000~600,000	98(32.8)
	≥600,000	64(21.4)
	non response	8(2.6)
	Total	299(100.0)

하는 장소로 시장이 가장 많았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2) 더덕의 구입 형태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더덕 구입 형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의 경우는 47.4%가 손질되지 않은 것, 21.0%가 박피 후 두들긴 제품을, 30~39세는 50.8%가 손질되지 않은 것, 23.8%가 박피되어진 것, 40~49세는 52.0%가 손질되지 않은 것, 23.5%가 박피되어진 것, 50세 이상은 37.0%가 손질되지 않은 것을 22.2%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9.8%가 손질되지 않은 것을, 22.7%가 박피되어진 것, 11.2%가 완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50.2%가 손질되지 않은 것, 22.9%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줄 미만의 경우는 60.0%가 손질되지 않은 것, 20.0%가 완제품을, 증줄에서는 42.1%가 손질되지 않은 것, 21.0%가 완제품, 고줄에서는 57.9%가 손질되지 않은 것, 각각 13.4%가 박피되어진 것과 완제품을, 대줄 이상은 39.0%가 손질되지 않은 것, 40.0%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줄 이상의 학력에서 손질되어진 더덕 51.4%와 완제품 구입 4.8% 더 높게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박피이상의 손질되어진 더덕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전체 49.5%가 손질되지 않은

Table 2. Purchasing place for Codonopsis Lanceolata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Factor	Purchasing place						Total	χ^2 -value	
	department	supper market	big market	convenience store	market	etc			
Age(years)	20-29	1(5.3)	1(5.3)	4(21.0)	0(0.0)	12(63.1)	1(5.3)	19(100.0)	19.736
	30-39	9(7.2)	1(0.8)	33(26.4)	0(0.0)	71(56.8)	11(8.8)	125(100.0)	
	40-49	14(11.4)	8(6.5)	39(31.7)	1(0.8)	54(43.9)	7(5.7)	123(100.0)	
	≥50	1(3.7)	2(7.4)	3(11.1)	0(0.0)	20(74.1)	1(3.7)	27(100.0)	
	total	25(8.5)	12(4.1)	79(26.9)	1(0.3)	157(53.4)	20(6.8)	294(100.0)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0(0.0)	0(0.0)	1(20.0)	0(0.0)	4(80.0)	0(0.0)	5(100.0)	15.620
	Middle school	0(0.0)	1(5.3)	5(26.3)	0(0.0)	11(57.9)	2(10.5)	19(100.0)	
	High school	5(3.3)	5(3.3)	35(22.7)	0(0.0)	98(63.6)	11(7.1)	154(100.0)	
	≥ Collage	10(9.6)	6(5.8)	37(35.6)	1(0.9)	44(42.3)	6(5.8)	104(100.0)	
	total	15(5.3)	12(4.3)	78(27.7)	1(0.3)	157(55.7)	19(6.7)	282(100.0)	
Monthly Income (Won)	<2,000,000	4(5.0)	4(5.0)	9(11.3)	0(0.0)	56(70.0)	7(8.7)	80(100.0)	35.886*
	2,000,000~3,000,000	9(9.4)	2(2.1)	26(27.1)	0(0.0)	54(56.2)	5(5.2)	96(100.0)	
	3,000,000~4,000,000	5(7.7)	2(3.1)	25(38.5)	1(1.5)	29(44.6)	3(4.6)	65(100.0)	
	4,000,000~5,000,000	5(13.6)	2(5.4)	13(35.1)	0(0.0)	13(35.1)	4(10.8)	37(100.0)	
	≥ 5,000,000	0(0.0)	1(12.5)	5(62.5)	0(0.0)	2(25.0)	0(0.0)	8(100.0)	
total	23(8.1)	11(3.9)	78(27.3)	1(0.3)	154(53.8)	19(6.6)	286(100.0)		
Job	No	8(7.5)	5(4.7)	29(27.4)	1(0.9)	55(51.9)	8(7.6)	106(100.0)	2.456
	Yes	16(9.8)	7(4.3)	40(24.5)	0(0.0)	90(55.2)	10(6.2)	163(100.0)	
	total	24(8.9)	12(4.4)	69(25.7)	1(0.4)	145(53.9)	18(6.7)	269(100.0)	
Family size	≤2	1(4.6)	2(9.1)	3(13.6)	0(0.0)	15(68.2)	1(4.5)	22(100.0)	8.153
	3-4	17(9.2)	6(3.2)	55(29.7)	1(0.6)	93(50.3)	13(7.0)	185(100.0)	
	5-6	6(7.9)	4(5.2)	18(23.7)	0(0.0)	42(55.3)	6(7.9)	76(100.0)	
	≥7	1(10.0)	0(0.0)	3(30.0)	0(0.0)	6(60.0)	0(0.0)	10(100.0)	
	total	25(8.5)	12(4.1)	79(27.0)	1(0.3)	156(53.3)	20(6.8)	293(100.0)	
Monthly food expenses (Won)	<200,000	5(17.9)	1(3.6)	5(17.9)	0(0.0)	15(53.5)	2(7.1)	28(100.0)	21.532
	200,000~400,000	8(7.9)	6(6.0)	20(19.8)	0(0.0)	60(59.4)	7(6.9)	101(100.0)	
	400,000~600,000	4(4.1)	1(1.0)	29(30.0)	0(0.0)	55(56.7)	8(8.2)	97(100.0)	
	≥600,000	6(9.5)	3(4.7)	24(38.1)	1(1.6)	26(41.3)	3(4.8)	63(100.0)	
	total	23(8.0)	11(3.8)	78(26.9)	1(0.4)	156(54.0)	20(6.9)	289(100.0)	

* p < 0.05

것, 23.3%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6%가 손질되지 않은 것, 18.5%가 박피되어진 것, 200-300만원은 51.6%가 손질되지 않은 것, 21.0%가 박피되어진 것, 300~400만원은 53.1%가 손질되지 않은 것, 28.8%가 박피되어진 것, 400~500만원은 35.2%가 손질되지 않은 것, 24.3%가 박피되어진 것, 10.8%가 완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0만원 이상은 각각 50.0%가 손질되지 않은 것과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수입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48.1%가 손질되지 않은 것, 23.3%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업주부는 54.2%가 손질되지 않은 것, 박피되어진 것 22.5%, 취업주부의 경우 44.2%가 손질되지 않은 것, 박피되어진 것 23.9%로 나타났으며 직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49.7%가 손질되지 않은 것을, 23.1%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명 미만의 경우는 50.0%가 손질되지 않은 것, 22.7%가 완제품, 3~4명에서는 48.4%가 손질되지 않은 것, 25.5%가 박피되어진 것, 5~6명에서는 51.9%가 손질되지 않은 것, 22.1%가 박피되어진 것, 7명 이상은 54.5%가 손질되지 않은 것, 18.2%가 박피되어진 것과 완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3. Purchasing form for *Codonopsis Lanceolata*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factor	Purchasing form					Total	χ ² -value
	No handling	handling products	hit after handling	end products	etc		
Age(years)	20-29	9(47.4)	2(10.5)	4(21.0)	3(15.8)	1(5.3)	19(100.0)
	30-39	64(50.8)	30(23.8)	9(7.2)	14(11.1)	9(7.1)	126(100.0)
	40-49	64(52.0)	29(23.5)	12(9.8)	12(9.8)	6(4.9)	123(100.0)
	≥50	10(37.0)	6(22.2)	2(7.4)	4(14.8)	5(18.6)	27(100.0)
	total	147(49.8)	67(22.7)	27(9.2)	33(11.2)	21(7.1)	295(100.0)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3(60.0)	0(0.0)	0(0.0)	1(20.0)	1(20.0)	5(100.0)
	Middle school	8(42.1)	3(15.8)	1(5.3)	4(21.0)	3(15.8)	19(100.0)
	High school	95(57.9)	22(13.4)	14(8.6)	22(13.4)	11(6.7)	164(100.0)
	≥ Collage	41(39.0)	42(40.0)	12(11.4)	5(4.8)	5(4.8)	105(100.0)
	total	147(50.2)	67(22.9)	27(9.2)	32(10.9)	20(6.8)	293(100.0)
Monthly Income (Won)	<2,000,000	41(50.6)	15(18.5)	6(7.4)	13(16.1)	6(7.4)	81(100.0)
	2,000,000~3,000,000	49(51.6)	20(21.0)	8(8.4)	11(11.6)	7(7.4)	95(100.0)
	3,000,000~4,000,000	35(53.1)	19(28.8)	6(9.1)	3(4.5)	3(4.5)	66(100.0)
	4,000,000~5,000,000	13(35.2)	9(24.3)	7(8.9)	4(10.8)	4(10.8)	37(100.0)
	≥ 5,000,000	4(50.0)	4(50.0)	0(0.0)	0(0.0)	0(0.0)	8(100.0)
total	142(49.5)	67(23.3)	27(9.4)	31(10.8)	20(7.0)	287(100.0)	
Job	No	58(54.2)	24(22.5)	7(6.5)	7(6.5)	11(10.3)	107(100.0)
	Yes	72(44.2)	39(23.9)	18(11.1)	25(15.3)	9(5.5)	163(100.0)
	total	130(48.1)	63(23.3)	25(9.3)	32(11.9)	20(7.4)	270(100.0)
Family size	≤2	11(50.0)	2(9.1)	2(9.1)	5(22.7)	2(9.1)	22(100.0)
	3-4	89(48.4)	47(25.5)	18(9.8)	16(8.7)	14(7.6)	184(100.0)
	5-6	40(51.9)	17(22.1)	5(6.5)	10(13.0)	5(6.5)	77(100.0)
	≥7	6(54.5)	2(18.2)	1(9.1)	2(18.2)	0(0.0)	11(100.0)
	total	146(49.7)	68(23.1)	26(8.9)	33(11.2)	21(7.1)	294(100.0)
Monthly food expenses (Won)	<200,000	15(53.6)	4(14.3)	3(10.7)	4(14.3)	2(7.1)	28(100.0)
	200,000~400,000	56(54.9)	21(20.6)	6(5.9)	14(13.7)	5(4.9)	102(100.0)
	400,000~600,000	46(47.4)	22(22.7)	11(11.3)	8(8.3)	10(10.3)	97(100.0)
	≥600,000	25(39.7)	21(33.3)	7(11.1)	6(9.5)	4(6.4)	63(100.0)
	total	142(49.0)	68(23.5)	27(9.3)	32(11.0)	21(7.2)	290(100.0)

*** p < 0.001

월평균 식비별로 살펴보면 전체 49.0%가 손질되지 않은 것, 23.5%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53.6%가 손질되지 않은 것, 박피되어진 것과 완제품이 각각 14.3%로, 20~40만원은 54.9%가 손질되지 않은 것, 20.6%가 박피되어진 것, 40~60만원은 47.4%가 손질되지 않은 것, 22.7%가 박피되어진 것, 60만원 이상은 39.7%가 손질되지 않은 것, 33.3%가 박피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더덕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더덕 섭취 빈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의 경우는 73.7%가 일년에 1~2회, 15.8%가 전혀

안 먹는다, 10.5%가 월 2~3회, 30~39세는 74.8%가 일년에 1~2회, 29.0%가 전혀 안 먹는다, 19.7%가 월 2~3회, 40~49세는 65.4%가 일년에 1~2회, 28.2%가 월 2~3회, 50세 이상은 66.7%가 일년에 1~2회, 25.9%가 월 2~3회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을 수록 주 2~3회 정도와 월 2-3회 섭취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0.0%가 일년에 1~2회, 23.2%가 월 2~3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70.2%가 일년에 1~2회, 23.4%가 월 2-3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졸 미만의 경우는 60.0%가 일년에 1~2회, 40.0%가 월 2~3회, 중졸에서는 63.1%가 일년에 1~2회, 각각 월 2~3회와 주 2~3회가 15.8%, 고졸에서는

Table 4. Usage frequency of *Codonopsis Lanceolata*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factor	Usage frequency of <i>Codonopsis Lanceolata</i>					Total	χ^2 -value
	every day	2-3/week	2-3/month	1-2/year	never		
Age(years)	20-29	0(0.0)	0(0.0)	2(10.5)	14(73.7)	3(15.8)	19.140*
	30-39	0(0.0)	2(1.6)	25(19.7)	95(74.8)	5(29.0)	
	40-49	0(0.0)	6(4.8)	35(28.2)	81(65.4)	2(1.6)	
	≥50	0(0.0)	2(7.4)	7(25.9)	18(66.7)	0(0.0)	
	total	0(0.0)	10(3.4)	69(23.2)	208(70.0)	10(3.4)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0(0.0)	0(0.0)	2(40.0)	3(60.0)	0(0.0)	13.852
	Middle school	0(0.0)	3(15.8)	3(15.8)	12(63.1)	1(5.3)	
	High school	0(0.0)	3(1.8)	43(26.1)	113(68.5)	6(3.6)	
	≥ Collage	0(0.0)	4(3.8)	21(19.8)	79(74.5)	2(1.9)	
	total	0(0.0)	10(3.4)	69(23.4)	207(70.2)	9(3.0)	
Monthly Income (Won)	<2,000,000	0(0.0)	3(3.7)	19(23.5)	56(69.1)	3(3.7)	19.613
	2,000,000~3,000,000	0(0.0)	2(2.0)	18(18.8)	69(71.9)	7(7.3)	
	3,000,000~4,000,000	0(0.0)	2(3.0)	18(27.3)	46(69.7)	0(0.0)	
	4,000,000~5,000,000	0(0.0)	1(2.7)	10(27.0)	26(70.3)	0(0.0)	
	≥ 5,000,000	0(0.0)	2(22.2)	2(22.2)	5(55.6)	0(0.0)	
total	0(0.0)	10(3.5)	67(23.1)	202(69.9)	10(3.5)		
Job	No	0(0.0)	1(0.9)	26(24.1)	78(72.2)	3(2.8)	4.432
	Yes	0(0.0)	9(5.5)	35(21.5)	112(68.7)	7(4.3)	
	total	0(0.0)	10(3.7)	61(22.5)	190(70.1)	10(3.7)	
Family size	≤2	0(0.0)	3(13.6)	4(18.2)	13(59.2)	2(9.1)	20.564*
	3-4	0(0.0)	2(1.1)	49(26.3)	129(69.4)	6(3.2)	
	5-6	0(0.0)	5(6.5)	16(20.8)	54(70.1)	2(2.6)	
	≥7	0(0.0)	0(0.0)	0(0.0)	11(100.0)	0(0.0)	
	total	0(0.0)	10(3.4)	69(23.3)	207(69.9)	10(3.4)	
Monthly food expenses (Won)	<200,000	0(0.0)	1(3.6)	4(14.3)	21(75.0)	2(7.1)	11.792
	200,000~400,000	0(0.0)	5(4.9)	21(20.6)	74(72.5)	2(2.0)	
	400,000~600,000	0(0.0)	1(1.0)	28(28.6)	63(64.3)	6(6.1)	
	≥600,000	0(0.0)	3(4.7)	16(25.0)	45(70.3)	0(0.0)	
	total	0(0.0)	10(3.4)	69(23.7)	203(69.5)	10(3.4)	

*p < 0.05

68.5%가 일년에 1~2회, 26.1%가 월 2~3회, 대졸 이상은 74.5%가 일년에 1~2회, 19.8%가 월 2-3회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해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전체 69.9%가 일년에 1~2회, 23.1%가 월 2~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69.1%가 일년에 1~2회, 23.5%가 월 2-3회, 200~300만원은 71.9%가 일년에 1~2회, 18.8%가 월 2~3회, 300~400만원은 69.7%가 일년에 1~2회, 27.3%가 월 2~3회, 400~500만원은 70.3%가 일년에 1~2회, 27.0%가 월 2~3회로 조사되었으며, 500만원 이상은 55.6%가 일년에 1~2회, 주 2-3회와 월 2~3회가 각각 22.2%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수입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70.1%가 일년에 1~2회, 22.5%가 월 2~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업주부가 일년에 1~2회가 72.2%, 월 2~3회가 24.1%, 취업주부의 경우 일년에 1~2회 섭취가 68.7%, 월 2~3회 이용이 21.5%로 나타났으며 직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69.9%가 일년에 1~2회, 23.3%가 월 2~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명 미만의 경우는 59.2%가 일년에 1~2회, 18.2%가 월 2~3회, 3~4명에서는 69.4%가 일년에 1~2회, 26.3%가 월 2~3회, 5~6명에서는 70.1%가 일년에 1~2회, 20.8%가 월 2~3회, 7명 이상은 100.0%가 일년에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족수가 3~4명의 경우 월 2~3회 더덕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 가족수가 5~6명의 경우 더덕을 월 2~3회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로 각각 나타나 노인을 포함한 가족수가 많을수록 더덕을 더 자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Choi JS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확대가족의 경우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식품배합을 생각하여 골고루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Cho EJ(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동거가족이 노인 비 동거 가족보다 산채를 더 자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식비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69.5%가 일년에 1~2회, 23.7%가 월 2~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75.0%가 일년에 1~2회, 월 2~3회가 14.3%로, 20~40만원은 72.5%가 일년에 1~2회, 20.6%가 월 2~3회, 40~60만원은 64.3%가 일년에 1~2회, 28.6%가 월 2~3회, 60만원 이상은 70.3%가 일년에 1~2회, 25.0%가 월 2-3회 더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식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더덕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더덕의 인식 조사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6.9%가 더덕을 건강에 유익한 식품, 10.9%가 향·질감 우수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더덕을 건강에 유익한 식품(63.2%), 행사 식품(21.0%), 향·질감 우수식품(10.5%) 순으로, 30~40대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0.0%), 향·질감 우수식품(7.2%), 행사 식품(6.4%) 순으로, 50대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65.4%), 기호식품(15.4), 향·질감 우수식품(11.5%)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미만의 경우 건강에 유익한 식품(80.0%), 향·질감 우수식품(20.0%), 중졸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6.5%), 향·질감 우수식품(17.6%), 고졸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5.0%), 향·질감 우수식품(10.4%), 대졸이상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9.2%), 향·질감 우수 식품(10.4%)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68.4%), 향·질감 우수식품(13.9%), 200-300만원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2.1%), 향·질감 우수식품(10.5%), 300~400만원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8.8%), 행사 식품(7.6%), 400~500만원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1.1%), 향·질감 우수식품(8.1%),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66.7%), 향·질감 우수식품(33.3%)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8.3%), 향·질감 우수식품(11.3%), 취업주부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4.0%), 향·질감 우수식품(11.1%)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2명 미만의 경우 건강에 유

익한 식품(66.7%), 행사 식품(19.0%)으로, 3~4명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1.2%), 향·질감 우수식품(6.9%), 5~6명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68.0%), 향·질감 우수식품(20.0%), 7명 이상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1.8%), 향·질감 우수식품(18.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식비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2.1%), 행사 식품(10.7%), 20~40만원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68.6%), 향·질감 우수식품(11.8%)으로, 40~60만원의 경우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81.3%), 향·질감 우수식품(11.5%), 6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79.4%), 향·질감 우수식품(11.0%)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더덕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 분석은 1점 '매우 싫어한다', 2점 '싫어하는 편이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좋아한다', 5점 '매우 좋아한다'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더덕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더덕 선호도는 20~29세의 경우가 평균 2.53±0.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9세가 2.30±0.76, 50세 이상이 2.05±0.83, 40~49세의 경우가 2.00±0.78 순으로 조사되어 연령간에 더덕 선호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중졸 미만의 경우가 2.60±0.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 2.30±0.75, 중졸 2.21±0.79,

Table 5. Perception of Codonopsis Lanceolata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Factor	perception of Codonopsis Lanceolata						Total	χ ² -value
	health food	taste food	event food	diet food	flavor & texture food	nutrition food		
Age(years)	20-29	12(63.2)	0(0.0)	4(21.0)	0(0.0)	2(10.5)	1(5.3)	26.457*
	30-39	100(80.0)	5(4.0)	8(6.4)	1(0.8)	9(7.2)	2(1.6)	
	40-49	97(78.3)	2(1.6)	5(4.0)	1(0.8)	18(14.5)	1(0.8)	
	≥50	17(65.4)	4(15.4)	2(7.7)	0(0.0)	3(11.5)	0(0.0)	
	total	226(76.9)	11(3.7)	19(6.5)	2(0.7)	32(10.9)	4(1.3)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4(80.0)	0(0.0)	0(0.0)	0(0.0)	1(20.0)	0(0.0)	11.152
	Middle school	13(76.5)	1(5.9)	0(0.0)	0(0.0)	3(17.6)	0(0.0)	
	High school	123(75.0)	4(2.4)	14(8.6)	2(1.2)	17(10.4)	4(2.4)	
	≥ Collage	84(79.2)	6(5.7)	5(4.7)	0(0.0)	11(10.4)	0(0.0)	
	total	224(76.7)	11(3.8)	19(6.5)	2(0.7)	32(10.9)	4(1.4)	
Monthly Income (Won)	<2,000,000	54(68.4)	2(2.5)	8(10.2)	2(2.5)	11(13.9)	2(2.5)	23.257
	2,000,000~3,000,000	78(82.1)	3(3.2)	4(4.2)	0(0.0)	10(10.5)	0(0.0)	
	3,000,000~4,000,000	52(78.8)	4(6.1)	5(7.6)	0(0.0)	3(4.5)	2(3.0)	
	4,000,000~5,000,000	30(81.1)	2(5.4)	2(5.4)	0(0.0)	3(8.1)	0(0.0)	
	≥ 5,000,000	6(66.7)	0(0.0)	0(0.0)	0(0.0)	3(33.3)	0(0.0)	
total	220(76.9)	11(3.9)	19(6.6)	2(0.7)	30(10.5)	4(1.4)	286(100.0)	
Job	No	83(78.3)	3(2.8)	6(5.7)	0(0.0)	12(11.3)	2(1.9)	2.532
	Yes	120(74.0)	7(4.3)	13(8.0)	2(1.2)	18(11.1)	2(1.2)	
	total	203(75.8)	10(3.7)	19(7.1)	2(0.8)	30(11.2)	4(1.4)	
Family size	≤2	14(66.7)	1(4.8)	4(19.0)	0(0.0)	2(9.5)	0(0.0)	19.586
	3-4	151(81.2)	7(3.8)	11(5.9)	2(1.1)	13(6.9)	2(1.1)	
	5-6	51(68.0)	3(4.0)	4(5.3)	0(0.0)	15(20.0)	2(2.7)	
	≥ 7	9(81.8)	0(0.0)	0(0.0)	0(0.0)	2(18.2)	0(0.0)	
	total	225(76.8)	11(3.8)	19(6.5)	2(0.7)	32(10.9)	4(1.3)	
Monthly food expenses (Won)	<200,000	23(82.1)	0(0.0)	3(10.7)	0(0.0)	2(7.2)	0(0.0)	14.773
	200,000~400,000	70(68.6)	6(5.9)	10(9.7)	2(2.0)	12(11.8)	2(2.0)	
	400,000~600,000	78(81.3)	2(2.0)	3(3.2)	0(0.0)	11(11.5)	2(2.0)	
	≥600,000	50(79.4)	3(4.8)	3(4.8)	0(0.0)	7(11.0)	0(0.0)	
	total	221(76.5)	11(3.8)	19(6.6)	2(0.7)	32(11.1)	4(1.3)	

* p< 0.05

고졸 2.20±0.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300만원의 경우가 2.47±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500만원이 2.22±0.63, 500만원 이상이 2.11±0.60, 200만원 미만인 2.10±0.81, 300~400만원이 2.08±0.86 순으로 조사되어 수입간에 더덕 선호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취업주부의 경우가 2.24±0.81, 전업주부가 2.21±0.82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식비의 경우 20만원 미만의 경우가 2.33±0.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0만원이 2.30±0.84, 40~60만원이 2.25±0.80, 60만원 이상이 2.08±0.7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경우가 2.82±0.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2.35±0.78,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는 1.94±0.78 순으로 조사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덕 선호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Table 6.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actor	Mean±S.D.	F or t-value
Age(years)	20-29	2.53±0.80 ^a	6.589 ^{***}
	30-39	2.30±0.76 ^{ab}	
	40-49	2.00±0.78 ^a	
	≥ 50	2.05±0.83 ^a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2.60±0.89	0.711
	Middle school	2.21±0.79	
	High school	2.20±0.85	
	≥ Collage	2.30±0.75	
Monthly Income (Won)	<2,000,000	2.10±0.81 ^a	3.335 ^{**}
	2,000,000~3,000,000	2.47±0.82 ^b	
	3,000,000~4,000,000	2.08±0.86 ^a	
	4,000,000~5,000,000	2.22±0.63 ^{ab}	
	≥ 5,000,000	2.11±0.60 ^{ab}	
Job	No	2.21±0.82	0.077
	Yes	2.24±0.81	
Monthly food expenses (Won)	< 200,000	2.33±0.83	1.482
	200,000~400,000	2.30±0.84	
	400,000~600,000	2.25±0.80	
	≥600,000	2.08±0.74	
Concern of health	a lot of	1.94±0.78 ^a	11.057 ^{**}
	a little	2.35±0.78 ^b	
	nothing	2.82±0.75 ^b	
Usage frequency of Codonopsis Lanceolata	Everyday	-	12.445 ^{**}
	2-3/week	1.40±0.52 ^a	
	2-3/month	1.96±0.75 ^a	
	1-2/year	2.35±0.77 ^b	
	Never	3.11±0.93 ^c	

p<0.01, *p<0.001

더덕 섭취빈도의 경우 전혀 안 먹는 경우가 3.11±0.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1~2회 2.35±0.77, 월 2~3회 1.96±0.75, 주 2~3회 1.40±0.52 순으로 조사되어 더덕 섭취빈도와 더덕 선호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Chung MS & Kang KJ(1995)의 연구에서는 채소구입 시 연령, 교육수준, 수입에 따라 우선적 고려요인이 달랐으며 수입이 적은 경우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층을 겨냥한 메뉴개발 시 다른 재료들과 혼합 사용함으로써 더덕의 사용 비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 혹은 영양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덕을 주재료로 하는 메뉴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덕에 대한 선호도를 좋아함, 보통, 싫어함으로 재분류한 후 χ^2 -test를 통해 섭취빈도와 상관관계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더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2~3회’ 섭취한 비율이 77.1%인 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한달에 2~3회’의 섭취비율이 21.4%로 나타났으며, 싫어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2~3회’ 섭취하는 비율이 1.4%로 응답하여 선호도에 따라 섭취빈도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더덕의 선호도에 따라 섭취빈도가 달라지므로 더덕섭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더덕의 선호이유 혹은 비 선호이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ho YD 등(2000)의 경북지역 주민의 콩치과메기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북지역 주민의 91.4%가 콩치과메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술안주나 간식으로만 먹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술안주로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usage frequency Codonopsis Lanceolata and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N(%)			
Factor	Like	usual	hate	Total	
Usage frequency of Codonopsis Lanceolata	Everyday	0(0.0)	0(0.0)	0(0.0)	0(0.0)
	2-3/week	10(100.0)	0(0.0)	0(0.0)	10(100.0)
	2-3/month	54(77.1)	15(21.4)	1(1.4)	70(100.0)
	1-2/year	108(51.9)	95(45.7)	5(2.4)	208(100.0)
	Never	2(22.2)	5(55.6)	2(22.2)	9(100.0)
	Total	174(58.6)	115(38.7)	8(2.7)	297(100.0)
χ^2 -value		36.675 ^{***}			

***p<0.001

서가 아니라 콩치과메기가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조리방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반찬으로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on JS & Oh HM(1999)의 연구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우리 것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95.3%이지만 수입산이 더 저렴한 경우에는 수입산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나 가격조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더덕의 선호·비 선호이유

조사대상자들의 더덕 선호이유는 Fig. 1에 제시하였다. 더덕의 선호이유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향이 좋아서' 22%, '영양이 풍부해서' 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덕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Fig.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 36.0%, '조리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26.0%, '구입이 힘들다' 19.0%로 나타났으며, '향이 싫다'는 4%, '질감이 싫다'는 2%로 나타나 더덕의 향기와 질감은 더덕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이유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Kim JS(1995)이 버섯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버섯의 맛, 질감은 선호하였으나 향기는 버섯의 선호 특성 중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버섯의 이용 상 문제점으로 가격의 저렴화, 조리법의 다양화, 보관·저장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과 일치하였다. Yoon GS(1995)의 연구에서는 시판장아찌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비위생적, 가격이 비싸서, 맛이 없어서의 순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ho JH(2003)의 연구에서 주부들이 시판되는 가공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부제 사용 가능성, 위생문제, 제품유무를 몰라서, 가격이 비싸서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더덕에 대한 소비 전망을 물어 본 결과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89.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경우 9.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Kim JS(1995)이 실시한 버섯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27.1%가 현상유지를, 응답자의 67.5%가 버섯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더덕의 기호성은 58.2%가 좋아하는데 선호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아서이므로 건강에 좋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과 조리법의 비 다양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덕 소비에 매우 긍정적인 수요 전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주부 299명을 대상으로 하여 더덕의 소비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8세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도는 90.7% 이상이 고졸 학력 이상의 고학력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형태는 62.6%가 3~4명의 핵가족을 이루고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은 32.1%가 200~3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식비는 34.1%가 20~4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주부의 60.4%가 취업주부로 조사되었다.

더덕에 대한 소비실태는 조사 대상자의 58.2%가 더덕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더덕의 구입 장소는 재래시장이 52.8%로 가장 많았고, 더덕 구입 시 주부들의 49.2%가 손질되지 않은 더덕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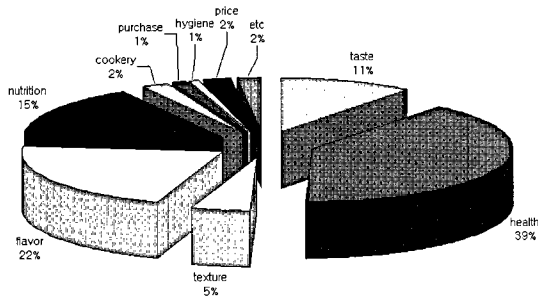


Fig. 1. Reason for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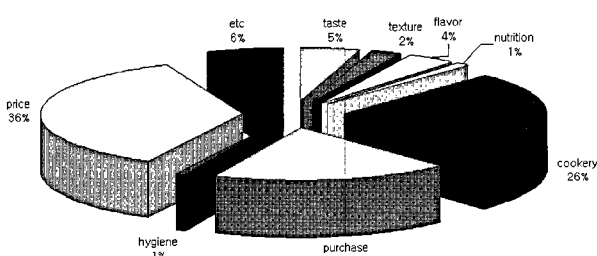


Fig. 2. Reason for not preference of Codonopsis Lanceolata

더덕을 섭취하는 빈도는 69.6%가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부들의 77.0%가 더덕이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 중 더덕을 가장 선호하는 구성원은 46.2%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덕 선호도는 연령별($p<0.001$), 월수입별($p<0.01$), 건강에 대한 관심도별($p<0.01$), 더덕섭취빈도별($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덕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39%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서, 22%는 향기가 좋아서, 15%는 영양이 풍부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덕을 선호하는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 36%, 조리법이 다양하지 못해서 26%, 구입이 힘들어서가 19%로 조사되었으며, 더덕의 향기와 질감은 더덕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부들의 더덕 소비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더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므로 국내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더덕 제품의 개발과 더덕의 영양적 가치 및 효능, 다양한 조리법 등을 각종 매체(인터넷, 강연회, 신문기사, 라디오, TV 등)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부들의 더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경제적인 더덕채배 기술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실 · 정해옥. 2002. 한국 음식과 문화, 문지사, p284-301, p307-347
- Cho EJ. 2000. A Survey on the Usage of Wild Grasses. Korean J. Dietary culture 15(1): 59-68
- Cho JH. 2003. A Survey on the rice-based processed food consumption of the housewives at Daegu.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9(3): 300-307
- Cho MY. 2003. A Study on Utilization and Consumption Promotion of Seafood in Elementary School Lunch Program. Korean J. Dietary culture. 18(2): 139-151
- Cho YD, Kim JA, Oh SH. 2000. The Study of the Taste and the Intake- Frequency for Kwamegi -Centering around Kyungduk. Korean J. Food & Nutr. 13(6): 585-594
- Choi JS, Ji SM, Paik HY, Hong SM. 2003. A Study on the Eating Habits and Dietary Consciousness of Adults in Urban Area. J. Korea Soc. Food Sci. Nutr. 32(7): 1132-1146
- Chung HK, Cho MS, Kang NE, Yang EJ, Kang MH. 2001. Patterns of Health Foods Usage by Food Lifestyles of the Adul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3): 195-202
- Chung MS, Kang KJ. 1995. A Survey on Housewives' Consumption Pattern and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 Korean J. dietary culture 10(5): 377-390
- Kim JS. 1995. A survey on mushroom uses and textur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shrooms affected by various cooking methods.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of Korea
- Laffrey SC. 1990. An exploration of adult health behavior. Western J. of Nurs. Res, 12(4): 434-447
- Lee HJ. 2000. A Survey on Commercial Kimchi Consumption of Housewives in Seoul and Chungbuk Aera. Korean J. Food & Nutr. 13(3): 221-225.
- Lee SK. 1999. The Volatile flavor components of wild & cultivated codonopsis lanceolata by instrumental and sensory analysis. Master thesis. Duksung University of Korea
- Maeng YS, Park HK. 1991. Antioxidant Activity of Ethanol Exyract from Dodok, The Korean J. Food Sci. Technol 23(3) :311-318
- Oh HS, Park HO, Yoon S. 2002. A Survey on the Consumption and the Perception of Mushrooms and Mushroom Dish.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2(2): 206-217
- Suh JS, Eun JS. 1998. Isolation of Active Components on Immunocytes form Codonopsis Lanceolatae. Korea J Community Nutrition. 31(6): 1076-1081
- Yoon GS. 1995.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utilization of Korea traditional basic side dishes. Korean J. dietary culture. 10(5): 457-463
- Yoon JS, Oh HM. 1999. Consumer Perception for Selection Criteria and Quality Improvement of Farm products and Processed Foods in Taegu Area. The Journal Keimyung University.

(2006년 4월 4일 접수, 2006년 7월 25일 채택)